**민2112 Note**

**◆Cross check : 광야생활 종료/ 호크마 주석**

신0213. 이제 일어나라, 내가 말하였느니라, 그리고 너희는 세렛 시내를 넘어가라, 이에 우리가 세렛 시내를 넘어갔느니라,

신0214.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나와, 우리가 세렛(제레드:관목 숲으로 줄지움,사해 동편강 세렛,사렛,세렛)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이 삼십 팔년이었으니,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, 전쟁(밀하마:전투,교전,전쟁,전쟁행위,싸움)의 남자들의 모든 세대가 무리[마하네: (여행자들이나 군부대의) 야영(野營), 군대,군인들의,춤추는 자들,천사들,가축,메뚜기,별들의 대군,떼,전장,천막,무리,장막들] 사이로부터 소진되었을[타맘:완성하다,완수하다,그치다,완전히(지나가다),소모하다,이루었다.끝나다,그만두다,실패하다,충분하다,없어지다,다 있다,완전하다,소비하다,총계하다,정직하다,허비하다,전체의] 때까지라,

성 경: [민21:12]주제1: [불뱀과 놋뱀 사건]주제2: [비스가 산으로의 행진]

▶ 세렛 골짜기 - '세렛'(Zered)은 비가 올 때만 5-6km정도의 긴 시내를 형성하는 와디(Wady)지역으로(오늘날의 Wady el-Hesa에 해당), 모압의 남동쪽을 지나 사해의 남동쪽으로 물줄기를 이룬다.

이스라엘은 이 '세렛 시내'를 건넘으로 비로소 광야 38년간의 지루한 방랑생활을 종결짓고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 여정에 돌입할 수 있었다(신 2:13, 14).